

JIR NEWS

우리 집 이야기

2025
VOL.22

농생명·바이오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한
글로벌 생명경제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 제23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K-Food 세계화 선도
- 전북특별자치도 '미생물융복합 그린바이오 육성지구' 선정_국가 거점 도약
- 제10대 이은미 원장 취임
- 바이오진흥원 제24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소방청장상 표창 수상
- 전북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 전국 7개 센터 중 종합평가 1위 달성
- 2025년 전북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성과공유회 개최
- 2025년 농식품기업 지원 성과공유회 개최
- 도내 농수산식품기업 판로개척 지원에 박차
- 글로벌 농식품 수출 확대 해외판로개척 지원 권역 확대
-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현장과 소통하며 한 단계 도약
- 전북연구개발특구 '연구소기업인의 밤' 열려
- 바이오진흥원 사회공헌활동, 관심과 참여 열기 뜨거워
- 바이오진흥원-농촌진흥청, 농생명 혁신생태계 구축 위해 협력 강화
- 전북 농식품바이오, 미래먹거리 발굴과 추진 위한 토론의 장 이어져
- 지역 일자리 창출 위해 시군과 협력 강화
- 2025년 전북도 10대 성과, 2026년 3대 도전, 2026년 7대 변화
- 기업 현장속으로 "현장이 답이다" [이고장식품, (주)엘프엘컴퍼니]
- 지원사업 안내
- 그린바이오 기업 신고 방법 안내



전북 농생명·바이오산업 육성과 지속가능한 미래가치 창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지역소재 대학, 연구기관, 기업, 지방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농생명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주요기능 및 역할

1 기획경영



- 농생명·바이오산업 육성 계획 수립 및 기획
- 기관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및 성과 관리
- 혁신기관 산학연 네트워크 협력 강화

2 농생명산업육성



- 농생명·바이오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전통식품 활성화 및 상생협력 지원
- 전북 지역먹거리 공급 확대

3 R&D 및 기술사업화



- 농생명·바이오 분야 R&D 사업 기획
- 지역 특화 소재 활용 고부가 R&D 지원
- 우수 연구성과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촉진

4 수출지원



- 전주 국제발효식품엑스포 개최
- 전북 농식품기업 B2B상담 및 수출활성화 지원
- 수출 중소기업 판로확대 역량강화 지원

5 생산·분석 지원



- 건강기능식품(GMP) 제형화 연구 및 생산 지원
- 자가품질검사 및 영양성분 등 품질분석
- 시제품 제작 및 디자인 개발 등 상품 경쟁력 강화

6 창업·일자리 창출



- 농생명·바이오 특화 창업보육 시스템 운영 및 활성화
- 현장 교육 및 실무형 우수 인재 양성
- 기업 맞춤형 고용연계 일자리 창출

제23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K-Food 세계화 선도	04
전북특별자치도 '미생물융복합 그린바이오 육성지구' 선정_국가거점도약	05
제10대 이은미 원장 취임	06
바이오진흥원 제24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소방청장상 표창 수상	07
전북해양수산물창업투자지원센터, 전국 7개 센터 중 종합평가 1위 달성	08
2025년 전북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성과공유회 개최	09
2025년 농식품기업 지원 성과공유회 개최	10
도내 농수산물식품기업 판로개척 지원에 박차	11
글로벌 농식품 수출 확대 해외판로개척 지원 권역 확대	12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현장과 소통하며 한 단계 도약	13
전북연구개발특구 '연구소기업인의 밤' 열려	14
바이오진흥원 사회공헌활동, 관심과 참여 열기 뜨거워	15
바이오진흥원-농촌진흥청, 농생명 혁신생태계 구축 위해 협력 강화	16
전북 농식품바이오, 미래먹거리 발굴과 추진 위한 토론의 장 이어져	17
지역 일자리 창출 위해 시군과 협력 강화	18
2025년 전북도 10대 성과, 2026년 3대 도전, 2026년 7대 변화	19
기업 현장속으로 "현장이 답이다" [이고장식품, (주)엘프엘컴퍼니]	20
지원사업 안내	22
그린바이오 기업 신고 방법 안내	23
진흥원 안내도	24



제23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K-Food 세계화 선도



전북특별자치도와 바이오진흥원이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한 제23회 전주국제발효식품 엑스포가 우리 발효식품 시장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해 발효식품의 세계화를 선도하고 농식품산업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올해 행사는 국내외 22개국 326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식품 관련 바이어와 각국 대사관 관계자 등 업계 전문가들이 대거 현장을 방문했다. 특히, B2B 상담회를 통해 총 554만 달러의 수출 상담액을 기록하며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했다.

또한, 전통 발효식품부터 최신 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가정간편식(HMR) 제품까지 다양한 상품이 전시되어 풍성함을 더했다. 특히 발효식품을 주제로 발효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집중 조명하고, 세계 발효식품을 소개한 '특별기획전시'를 비롯해 우리 지역의 식품 명인을 대내외로 널리 알린 전북식품명인대전과 제1회 전북향토음식홍보전도 관람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글로벌 농식품 교류 및 판로확대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과 어린이 뮤지컬 등 품격 높은 문화공연이 행사기간 동안 진행되어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바이오진흥원은 제23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농식품 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식품을 통한 전북의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확대해 농생명산업 수도로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한편,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발효식품과 지역 콘텐츠를 성공적으로 결합한 모범사례로 평가받으며 타 지방자치단체의 귀감이 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미생물융복합 그린바이오 육성지구' 선정_국가 거점 도약

전북특별자치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조성사업' 공모에서 '미생물융복합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미생물, 식물, 곤충 등 생물자원을 활용한 그린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부터 생산, 사업화까지의 통합 생태계를 갖춘 지역을 집중 육성하는 국가 전략사업이다.

전북은 정읍, 전주, 익산, 남원, 임실, 순창 등 6개 시군에 걸쳐 409만 5,293㎡ 규모로 육성지구를 조성하며, 각 시군별로 특화 산업 기능을 분담한다. 예를 들어 정읍은 농축산용 미생물의 생산과 실증 기능, 익산은 기능성 식품, 전주는 화장품, 남원은 곤충, 임실은 유제품 산업 등을 맡게 된다. 특히 전북은 연구개발특구, 기회발전특구, 농생명산업지구가 연계된 전국 유일의 산업벨트 구조를 갖추고 있어, 시너지 효과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지구 지정으로 전북도는 ▲연구혁신 ▲기반조성 ▲전문인력 양성 ▲기업 유치 및 사업화 촉진 등 4대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3,055명의 전문 인력 양성, 116개 기업 유치, 신제품 50종 개발, 지역 원료 5만 5,000톤 확보 등 산업생태계 전반의 고도화를 목표로 한다.

전북은 이미 전국 최대 규모인 18만 7,000 균주의 미생물 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정읍·순창의 미생물 산업, 김제 종자산업, 익산 식품 및 동물용의약품 산업, 남원 곤충산업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5대 특화 산업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선제적 투자와 정책 지원을 지속해왔다.

특히 전북도는 1,896억 원 규모의 기반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대표적으로 ▲농축산용 미생물 GMP 산업화시설 ▲유용 미생물은행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첨단 분석 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 향후 총 3,61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국내외 기업 유치와 수출 확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선제적 기반 조성과 산업 전략은 전북을 그린바이오 산업의 중심지이자 국가 전략산업의 거점으로 성장시키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권 각 지역별 추진내용 및 역할



제10대 이은미 원장 취임

바이오진흥원은 11월 18일 제10대 이은미 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제9대 진흥원장을 역임한 이은미 원장은 바이오첨단소재 지식 산업센터,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그린바이오 육성지구 조성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을 발굴 및 수주하여 전북 농생명·바이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및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등 ESG경영을 선도하며 기관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아 제10대 원장으로 재선임 되었다.

이날 취임식에 앞서 진행된 임명장 수여식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참석해 임명장을 전달하며 전북이 글로벌 생명 경제도시로 거듭나는데 진흥원의 역할이 크다며 응원의 말을 전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이은미 원장은 “지난 3년간 진흥원 임직원들의 많은 노력과 도움으로 인프라 기반 확보, 신규 사업 발굴, 기업지원, 인력양성, ESG경영 선도 등 다양한 성과를 이뤘다.”며 “이를 바탕으로 단순한 행정조직이나 지원기관을 넘어 전북 바이오산업의 주도적 설계자로서 첨단 기술 융합 및 산업 혁신 전주기 생태계 기반 강화를 통한 그린바이오산업 고도화로 글로벌 생명산업을 선도하는 혁신 거점 기관으로 확대·발전시키겠다.”고 힘찬 포부를 밝혔으며 ‘연결과 협력’, ‘도전과 혁신’의 가치 위에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리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내일을 밝히는 큰 불빛이 되도록 도정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제10대 이은미 원장은 전북대학교 화학공학·생물공학 석 박사 학위를 보유한 바이오산업 전문가로 지난 3년간 전북자치도 농생명 바이오 산업의 혁신 성장을 주도해 왔다. 또한,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과학기술 및 산업정책 자문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그간의 공로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유공자 표창(2018), 국무총리 표창(2020)을 수상한 바 있다.



바이오진흥원 제24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소방청장상 표창 수상



제24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소방청장상 표창 수상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11월 3일(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4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공로상 단체분야에서 '소방청장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소방청이 주최하고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자를 선정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안전 분야 수상 제도이다.

이번 수상은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기관 최초의 성과로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안전문화 정착 노력 등 전반적인 안전 역량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이다.

특히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취득 ▲안전 전담 TF 운영 및 비상 훈련, 합동 안전점검 실시 ▲인프라 단지 전체 대상 유관기관 및 입주기업 안전지원 등 다양한 안전강화 활동을 추진하여 모범적인 안전문화 정착 사례로 인정받았다.

바이오진흥원은 전 임직원이 안전문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위험 관리로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사회·기업·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안전문화 선도기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전북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 전국 7개 센터 중 종합평가 1위 달성



2025년 전북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 성과보고회 개최

바이오진흥원과 전북특별자치도는 12월 16일(화)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전북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 성과보고회'를 열어 도내 해양수산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해 온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성과보고회는 전북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의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단계별 지원을 통해 도출된 기업 성장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전북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는 2025년 전국 7개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성과 평가에서 종합 1위를 달성하며, 단계별 맞춤 지원체계의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행사는 센터의 연간 사업 성과보고에 이어 창업·성장·고도화 단계별 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우수기업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창업단계 우수사례로는 '맘마명냥', 성장단계는 '이고장식품', 고도화단계는 '전이수산'이 선정되어 사업 참여 과정과 주요 성과를 공유했으며,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기업별 성장 과정과 지원사업 활용 경험, 사업 고도화 과정 등이 소개됐고, 이를 통해 현장 수요를 반영한 단계별 맞춤 지원이 기업 성장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음이 확인됐다.

바이오진흥원은 전국 성과평가 1위 달성을 계기로 앞으로도 센터가 도내 해양수산기업의 성장 과정에 실질적으로 동행하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와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바이오진흥원이 운영 중인 전북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는 창업·성장·고도화 단계로 구분된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도내 해양수산기업의 사업 안정화와 경쟁력 강화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2025년 전북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성과공유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라승용·김종훈)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도내 농생명 혁신기관과 대학 등 28개 기관, 70여 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중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농생명 산업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산·학·연·관 협력 기반의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기술개발과 산업화 연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행사는 ▲연구성과 기반의 기술이전 및 현장 적용(박정민 한국식품연구원 기술산업화실장) 특강을 시작으로 ▲현장 애로기술 해결 사례 공유 ▲기업-연구기관 간 협력 확대 방안 등을 주제로 한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김제 '다복솔식품'이 떡의 굳음 현상으로 인한 품질 저하 문제를 위원회 전문경력 활동가의 컨설팅을 통해 '굳지 않는 떡' 기술을 이전받아 해결한 사례가 소개됐다.

또 익산 '라라스팜'은 콩비지 부산물 처리와 활용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공유하며, 연구자와의 장기적 기술협력 필요성을 제시했다.

전북도는 올해 위원회 운영을 통해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스마트농업·원예, 종자, 반려동물 등 5대 분야에서 총 25건의 기술 수요조사서를 도출했으며, 이 가운데 1,765억 원 규모의 5개 대형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라승용 공동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연구기관과 기업이 직접 만나 현장의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기술지원과 산업혁신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민선식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생명 산업의 성장은 연구 성과를 현장에 실제로 적용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 맞춤형 지원과 산·학·연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년 농식품기업 지원 성과공유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



전북특별자치도와 바이오진흥원은 12월 10일 더메이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2025년 농식품기업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올해 추진한 주요 농식품기업 지원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정도건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산업과장, 이은미 바이오진흥원장을 비롯해 ▲전북 농생명 분야 대표기업 육성(37개사),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24개소), ▲식품기업 창업프로그램(20개사), ▲특화역량 BI 육성(20개사) 등 4개 사업에 참여한 기업 대표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성과보고회에서 발표된 주요 성과에 따르면, 대표기업 육성사업 참여 37개사의 평균 매출은 전년 대비 15.7% 증가했으며, 특히 2년 차에 접어든 17개 기업은 총매출 123억 원을 기록하며 26.6%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사업은 대규모 사업비 확보와 함께 계약재배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며 안정적인 원료공급 기반을 확충했다. 식품기업 창업 프로그램에서는 3개 기업이 총 7억 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고, 매출 성장형 기업의 평균 매출이 65.8% 상승했다. 특화역량 BI 육성사업은 매출 37.9%, 고용 18.6% 증가와 함께 총 4개 기업이 17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한 해 동안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판로개척, 창업역량 강화 등 전주기적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실질적 성장을 뒷받침해 왔으며, 그 결과 다수 기업이 매출 확대와 고용 증가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며 지역 농생명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올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10개 기업이 선정되어 도지사 상 4개사, 중소벤처기업청장상 2개사, 진흥원장상 4개를 각각 수여했다. 또한, 4개 사업의 기업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사업화 과정, 기술개신 전략, 성장 경험 등이 공유됐으며 전문가 초청 강연과 토크콘서트에서는 투자, 창업, 사업화에 대한 실질적 조언과 현장 중심의 정보 교류의 장이 마련되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성과보고회를 계기로 2026년에도 기업 맞춤형 지원 확대, 농업과 기업간 연계 플랫폼 고도화, 창업 및 사업화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여 도내 농생명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도내 농수산식품기업 판로개척 지원에 박차



2025 수원팔도밥상페어



2025 메가쇼 참가



2025 부산국제수산엑스포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바이오진흥원은 2025년 하반기 도내 농식품 및 수산식품 기업들과 함께 국내 주요 식품 박람회를 참가하여 전북 식품의 우수성과 시장 경쟁력을 대내외에 알리고, 판로 확대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2025 수원 팔도밥상페어(7.3~6, 수원 컨벤션센터)’에 전북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와 도내 수산기업들이 참가해 젓갈, 장류, 건어물, 수산 가공식품 등 전북의 지역 특색을 살린 제품을 선보였다. 현장 시식과 제품 판매를 통해 소비자에게 품질과 맛을 직접 알리는 기회를 가졌으며, 7,500만 원의 현장 판매 성과를 기록했다.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구매와 재구매 의사 확인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향후 유통 확대 가능성도 확보했다. 참가 기업들은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며 제품 경쟁력을 체감한 의미 있는 행사로 평가했다.

‘메가쇼 2025 시즌 2(11.13~16, 일산 킨텍스)’에서는 전북 농생명 대표기업 8개사가 ‘전북 음식이야기’를 주제로 공동관을 운영했다. 전통 장류, 탕류, 떡류, 간편식 등 전북 대표 식품을 전시하고, 현장 시식과 설명 운영을 통해 관람객과 바이어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 결과 현장 판매 8천만 원, 납품 및 수출 계약 15억 원 규모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바이오진흥원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수도권 진출을 희망하는 식품기업의 유통망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2025 부산국제수산엑스포(11.5~9, BEXCO)’와 ‘수산양식 박람회’에도 도내 수산기업 10개사가 참여해 전북 공동관을 운영하고 청정 원물과 고품질 가공기술을 앞세운 수산식품을 소개했다. 바이어 및 관람객들의 높은 관심 속에 약 3억 원 규모의 계약 성과(3건)를 달성했으며, 수산양식박람회에서는 양식 기자재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기술교류를 통해 스마트양식, 친환경 먹이 개발 등 차세대 양식 기술 관련 협력 논의도 이뤄졌다.

바이오진흥원은 국내 박람회를 통해 전북 농수산 식품의 우수성을 전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알리고, 도내 기업들의 실질적 유통 확대와 수출 기반 구축을 뒷받침했다. 향후에도 전북도와 협력하여 유통망 연계, 온라인 플랫폼 입점, 후속 마케팅 전략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나가며 전북 식품 산업의 전국화 및 글로벌화에 주도적 역할을 할 계획이며, 공고를 통해 농식품기업 통합마케팅 기업을 모집중에 있다.

문의 : 기업육성팀(063-210-6595, 6590, www.jif.re.kr 일반공고 참고)



글로벌 농식품 수출 확대 해외판로개척 지원 권역 확대



전북특별자치도와 바이오진흥원은 2025년 하반기 미국, 독일, 호주, 인도네시아 등 해외 주요 시장에서 열린 국제 식품박람회 및 수출 상담회에 참가해 성황리에 해외행사를 마무리하며 전북 농수산식품의 수출성과와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한층 끌어올렸다.

'Fine Food Australia 2025(9.8~11, 호주 시드니)'에서는 전북홍보관을 운영하며 도내 3개 식품기업이 총 75만 불의 상담성과와 20만 불의 현장계약을 달성했다. 친환경·건강식 중심의 간편식과 전통 식품이 '프리미엄 아시안푸드' 트렌드에 부합하며 현지 유통사와의 계약 및 테스트 협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어 세계 최대 식품 박람회인 독일 'ANUGA 2025(10.4~8)', 그리고 동시에 미국 '애틀란타 한인축제'에도 참가해 B2B·B2C 시장을 동시에 공략했다. ANUGA에는 도내 3개 기업이 참여해 유럽 유통채널과의 수출 상담 75만 불의 실적을 기록했고, 애틀란타 한인축제에서는 팜조아가 15만 불 상당의 완판 성과를 올리며 북미 시장에서의 인기도를 입증했다.

해외 바이어 초청으로 '미국 H마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11.5~6)'를 개최, 도내 식품기업들이 미국 최대 아시안 식품 유통망과의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했다. 바이어들은 현장에서 직접 제품을 시식하고, 가격경쟁력 및 현지화 가능성 등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했으며, 일부 기업은 테스트 입점 및 샘플 납품을 협의하는 등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졌다.

또한 'SIAL InterFOOD 2025(11.12~15,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참가, 전북홍보관을 통해 아세안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데이웰'과 '라라스팸' 등 도내 2개 기업은 총 40만 불 규모의 수출상담을 기록했으며, 현지 바이어들과 MOU 2건을 체결, 할랄 시장을 겨냥한 실질적 파트너십 기반도 확보했다.

바이오진흥원은 이번 일련의 해외박람회 및 수출행사를 통해 각 시장별 유통 환경에 맞춘 맞춤형 수출 전략을 실행에 옮겼으며, 향후에도 후속 상담, 현지 프로모션, 패키지·라벨링 개선 등 후속지원을 강화해 전북 식품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확대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문의 : 해외수출팀 063-210-6591, 6597



Fine Food Australia 2025



애틀란타 한인축제
송미령 장관 현장 참관



SIAL InterFOOD 2025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현장과 소통하며 한 단계 도약



전북특별자치도와 바이오진흥원은 2025년 하반기 도내 먹거리 정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생산자-소비자 간 소통 교류회와 정책워크숍, 품평회 등 다양한 현장 중심의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 먹거리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7월 10일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에서는 '지역가공먹거리 생산-소비 소통 교류회'가 열려 완주 내 영양교사, 공공기관 급식담당자 등 50여 명과 지역 가공업체 관계자 24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활발한 의견 교류가 이뤄졌다. 제품 시식과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해 공급자-수요자 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바이오진흥원은 이를 기반으로 급식용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어 7월 24~25일에는 고창 웰파크 호텔에서 '2025 먹거리정책 통합워크숍'이 개최돼 전북 14개 시군의 행정, 교육계, 센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먹거리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전문가 강연과 오픈테이블 토론을 통해 ▲지역먹거리 공감대 확산 ▲정책 실행력 강화 ▲기초지자체 중심의 먹거리 계획 실행 등에 대한 다양한 과제가 제시됐다.

9월 12일에는 '농식품기업 공공·단체급식 품평회'가 전주 더메이 호텔에서 열려 48개 농식품 기업과 공공기관 관계자 220여 명이 참석했다. 품평회와 사례발표, 강의를 통해 공공급식 진입 전략과 실무적 노하우를 공유했으며, 바이오진흥원은 지역 기업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한 협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11월 20일에는 김제시 가족센터에서 '김제·부안 지역가공먹거리 소통 교류회'가 개최되었다. 도내 다섯 번째로 열린 이번 교류회에는 김제·부안 지역의 학교급식 관계자와 가공업체들이 참석해, 제품 시식과 소통을 통해 수요 현장의 의견을 직접 나누는 실질적 접점이 형성되었다.

바이오진흥원은 2025년 하반기 동안 남원, 군산, 완주, 익산, 김제·부안 등 총 5차례의 교류회를 운영하며, 지역가공먹거리가 공공급식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설계와 실행 기반을 강화해 왔다. 향후에도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공공급식-지역가공업체 간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DB 고도화, 판로 확대, 마케팅 전략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전북형 먹거리 체계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지역가공먹거리 생산-소비 소통 교류회(완주)



2025 먹거리정책 통합워크숍



농식품기업 공공·단체급식 품평회



김제·부안 지역가공먹거리 소통 교류회

전북연구개발특구 '연구소기업인의 밤' 열려



2025년 7월 30일, 전주 그랜드힐스톤 호텔에서 열린 '전북특구 연구소기업인의 밤'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가 주최하고, 바이오진흥원이 함께한 가운데, 전북 도내 연구소기업 관계자 약 60명이 참석해 기술사업화와 네트워킹을 주제로 활발한 교류를 이어갔다.

이 행사는 '2025년 전북특구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사업'의 일환으로, 전북 지역 연구소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유망 기술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연구소기업을 위한 R&D 지원정책 소개, 창업 성장사례 발표, 기술사업화 컨설팅 안내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참석자들은 기술이전, 투자유치, 사업화 기획 등 다양한 주제로 정보를 교환했다.

바이오진흥원은 이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주기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시제품 제작, 투자자 연계 프로그램 연결 등 실질적인 후속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전북 연구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혁신 네트워크가 본격 가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북연구개발특구 '연구소기업인의 밤'

바이오진흥원 사회공헌활동, 관심과 참여 열기 뜨거워



바이오진흥원은 2025년 하반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섰다.

먼저, 도내 기업 및 복지기관과 함께 '사회공헌활동 참여기업 소통 간담회'를 개최해, 지난해 사회공헌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등과 협력한 명절 나눔, 아동 기부행사, 장애인 쿠킹 클래스 등 다양한 활동을 돌아보며, 2025년에는 ESG 경영과 바이오·식품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밀착형 공헌 활동 확대에 뜻을 모았다.

여기에 바이오진흥원 임직원이 뜻을 모아 '사회공헌 기부 바자회'를 열어 임직원들이 정성으로 기부한 물품 약 200여 점을 판매해 수익금을 마련하였고 이를 지역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이어 추석에는 도내 식품기업 9개사와 함께 총 1,600만 원 상당의 생필품과 식품을 전주 호성보육원과 전주시장애인부모회에 기부하며, 따뜻한 추석 명절을 함께 나눴다.

또한,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행사에서는 발달장애인 45명과 보호자들이 참여한 '임실치즈퐁듀 만들기' 쿠킹클래스를 운영하며, K-발효식품의 가치와 향토음식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으며, 김장철을 맞아 발달장애인 120여 명과 함께하는 '김장김치담그기 체험'과, 그 김치를 전주시 호성보육원에 전달하는 기부 행사도 진행했다. 체험과 기부가 연계된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상생형 사회공헌 모델로 주목받았다.

바이오진흥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역 연계 활동을 통해 공공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노력할 것이다.



사회공헌활동 참여기업 소통 간담회



진흥원 임직원 참여 사회공헌 기부 바자회



추석맞이 사랑나눔활동



임실치즈퐁듀 만들기 체험



김장김치 담그기 체험

바이오진흥원-농촌진흥청, 농생명 혁신생태계 구축 위해 협력 강화

바이오진흥원은 농촌진흥청과 함께 '국가와 지역이 함께 만드는 농생명 혁신 생태계'를 주제로 농진청 홍보관과 과학원 주요 현장을 방문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가 연구기관과 전북 지역 혁신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농생명 산업 분야의 미래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 참석자들은 지역 주력산업 활성화, 첨단기술 협력, 공동과제 발굴 등 다양한 의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 주요 연구기관장과 농촌진흥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농업위성센터, 슈퍼컴퓨팅센터, 농업유전자원센터 등 농진청의 핵심 연구 인프라를 직접 둘러보며 공동연구 가능성과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농촌진흥청의 세계적 수준의 연구 인프라를 지역기관과 연계하여 활용할 경우, 지역 농생명 산업의 혁신과 확장에 실질적인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기대가 모아졌다.

바이오진흥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가와 지역이 함께 농생명 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의미를 두고 있으며 진흥원은 향후 국가기관과 지역 출연기관 간 협력을 조율하고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한편, 바이오진흥원은 전라북도 농식품산업과와 공동 운영 중인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를 통해 농촌진흥청과의 협력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이를 국가사업으로 연계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나가고 있다.



전북 산학연 과학기술 협의체 연구현장 방문



농업과학원



농업위성센터



농업유전자원센터



슈퍼컴퓨팅센터

전북 농식품바이오, 미래먹거리 발굴과 추진 위한 토론의 장 이어져



2025년 하반기, 전북특별자치도와 바이오진흥원은 전북 식품 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포럼과 세미나를 개최했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과 맞춤형 건강관리 수요 증가에 따라, 전북도는 마이크로바이옴과 AI 기술을 활용한 커스텀푸드 및 케어푸드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9월 24일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열린 '미래농업 전북포럼'에서는 '데이터 기반 맞춤형 케어푸드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도의 중장기 산업 육성 비전이 발표됐다. 포럼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식단 설계, 건강관리 솔루션의 방향, 케어푸드 산업 플랫폼 구축 사례 등이 공유됐으며, 전북이 보유한 대규모 미생물 자원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선도기업 3개사 육성, 연관기업 40개사 확충, 2,300개의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되었다.

앞서 9월 18일에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 열린 'WFT25 식물기반푸드 포럼'이 개최되어, 대체식품의 환경적 가치와 미래 식문화로서의 가능성을 조명하며, 산학연관 협력 체계인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의 역할과 협력 방향을 논의되었으며, 이를 이어 10월 17일에는 'K-FOOD NEXT 포럼'을 통해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커스텀푸드 제조 혁신 전략이 발표되었으며, 도내 식품기업 및 유관기관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지역을 커스텀푸드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도는 1,875억 원 규모의 연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AI·마이크로바이옴 융합 기술을 식품 제조에 적극 접목하고 있다.

10월 23일 열린 '맞춤형 케어푸드 산업 육성 세미나'에서는 산업계와 연구자가 참석해 전북도의 중장기 육성계획을 공유하고,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한 정책 개선과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참여 기업들은 R&D 확대와 실증 기반 강화, 인증 지원 등 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국가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되었다. 9월 23일에는 농촌진흥청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 연구 인프라와 전북 지역의 연구·산업 역량을 연계하고, 공동연구 및 기술사업화 가능성을 검토하며 농생명 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11월 18일 개최된 'K-Food+ 수출전략 세미나'에서는 몽골을 중심으로 한 해외 수출 전략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기능성식품과 케어푸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몽골 시장을 타깃으로, 제품 판매를 넘어 기술과 생산방식까지 결합한 플랫폼형 수출모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ODA 및 ESG 연계 사업 발굴도 검토되었다.

이처럼 전북도와 바이오진흥원은 산·학·연·관이 협력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와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전북은 케어푸드 및 푸드테크 산업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며, 대한민국 식품산업 혁신을 선도할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미래농업 전북포럼



WFT식물기반푸드 포럼

지역 일자리 창출 위해 시군과 협력 강화



바이오진흥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와 함께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청년 식품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청년 창업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전북도의회 이정린 의원, 전북자치도 민선식 국장,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이영철 원장을 비롯해 남원 지역 청년 식품기업 7곳의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청년 기업인들은 판로 개척의 어려움, 초기 시설 투자 부담, 인력난 등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였으며, 특히나 마케팅 지원과 유통망 확대 지원에 대한 요청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바이오진흥원은 청년 기업 전용 통합 마케팅 지원 확대를 약속했으며, 공동 생산 시설과 HACCP 인증 인프라를 활용해 초기 투자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또한, 기술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R&D 및 기술이전을 지원하고, 연구진이 직접 현장을 찾아 심층 상담을 진행할 계획을 공유하였다.

전문 인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현장실습, 특성화 교육과정, 대학 연계 프로그램 등 청년 인재 양성 정책을 적극 소개하며, 기업 스스로의 브랜드와 비전 홍보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브랜드 전략과 관련해서는 기존 디자인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브랜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전북도의회 이정린 의원은 청년들의 농식품 창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예고했다. 전북도 민선식 국장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발굴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바이오진흥원 역시 이러한 공감대와 함께 하기 위해 청년 창업자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농생명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다.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와 함께 남원시 농식품 청년기업 육성 정책간담회 개최

2025년 전북도 10대 성과

도전을 성공으로, 더 큰 전북으로
도민과 함께 해냈습니다.

10대 성과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

**전국 최초
피지컬 시 실증단지 추진**

퓨처그래프 **DS DANSUK**
LS 엘앤에프 배터리 솔루션
17조원 투자유치 돌파
(245개사, 17조 4067억원)

국가예산 10조원 시대 개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
(15개 시업, 2조 1,916억원)

**삼성전자 SAMSUNG
스마트 허브단지 착공**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추진**(137개사)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
새만금까지 33분

**벤처펀드 누적 1조원
돌파**
(31개, 1조 994억원)

기회발전특구 지정
5개 시군, 104만명

시군명	인구(만명)	주요산업
진안군	10.1	농업·농촌관광
고창군	10.1	농업·농촌관광
남원시	10.1	농업·농촌관광
무주군	10.1	농업·농촌관광
완주군	10.1	농업·농촌관광

興民由之 여민유지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과 함께 **도전**의 결실을 완성해 나아가겠습니다.

산업 변화상

전북에서 꽃을 피우고 만발하는
'기업만개(滿開, 10,000개)' → 노사합성

테스트베드로 불을 지피고 타고르는
'산업점화(點火)' → 도민환호

3대 도전상

**1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2 피지컬 시
생태계 기반 조성**

**3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도입**

興民由之 여민유지

전북특별자치도

2026년 3대 도전

당신의 삶을 채우는 **7가지 체감 약속**

성공의 결실을 도민의 행복으로,
과정을 덜고 **희망**은 더하겠습니다.

7대 약속

**1 전북형 통합돌봄망 &
은빛일터**
아이, 산중년, 아르산노후까지
전 생애주기애 빈틈없는 케어

**2 기업이 모이는 전북,
시간이 두꺼워지는 도민**
20조 투자의 씨앗을 알차게 익히는 열매로
활력 넘치는 민생경제 확산

**3 문화가 경제가 되는 전북,
일상이 예술이 되는 도민**
창의적 영감을 산업의 가치로
공급하는 문화경제 시대 개막

**4 사통팔달,
쾌속 교통시대 개막**
통시·산·해, 기차없이
더 빠른 길

**5 미래 산업 주도권 확보 &
에너지 대전환**
탄탄한 RE100 기반 마련

**6 대한민국
청년농 창업 1번지**
미래를 삼는 농생명
희망을 가두는 청년농

**7 저출생 대책 &
합계출산율 1.0 시대**
꿈을 주가 양육 걱정없는
활기찬 미래

**더 큰 미래로
도전합니다.**

興民由之 여민유지

전북특별자치도

2026년 7대 변화

기업 현장속으로 “현장이 답이다” 이고장식품

‘품목전환을 통해 5배 성장 “소확리” 작지만 확실한 이로움을 실천

전북 전주에 위치한 ‘이고장식품’은 자연 재료를 활용해 건강하고 맛있는 식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전통 식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가공식품을 개발해온 건강·전통식품 전문기업이다. 창업자 장수진 대표는 여성기업 및 벤처기업 인증, ISO22000 인증, 다수의 특허 및 상표권 확보 등을 통해 품질과 위생, 기술력을 탄탄히 다져왔다.

초기에는 곡물발효음료와 과일청을 중심으로 제품을 생산했으며,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곡물발효제 제조기술을 이전받아 ‘기능성’과 ‘자연 그대로’라는 콘셉트를 접목한 제품을 선보였다. 약용식물자원관리사, 발효효소관리사 등 관련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과학적이고 위생적인 공정관리를 통해 차별화된 발효 제품군을 구축해왔다.

시장 변화와 소비자 트렌드에 발맞춰 이고장식품은 기존의 과일청 중심 사업에서 벗어나, 수산 간편식과 건강 지향 식품 중심의 제품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했다. 특히 전북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시제품 개발, HACCP 기반 위생관리, 국내외 박람회 참가 등 다방면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며 수산 간편식 전문기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에 성공했다.

대표적인 신제품으로는 ‘새우갈릭채담카레’, ‘유기농 해물육수’ 등을 포함한 9종이 있으며, 이들 제품은 밀키트나 레토르트 형태로 간편 조리와 건강성을 동시에 잡았다. 깔끔한 맛과 유기농 원재료를 강조한 제품들은 온라인 유통 플랫폼과 지역 특산품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현대적인 패키지 디자인과 스토리텔링 요소를 더해 브랜드 이미지도 강화하고 있다.

업종 전환 이후 이고장식품의 매출은 약 5배 증가하여 10억 원 수준에 도달했고, 수출 또한 미국, 태국 등으로 확대되며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 중이다. 해외 바이어 대상 시식 및 상담을 통해 수산 간편식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꾸준히 판로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제품 개발을 넘어, 전북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를 비롯한 지역 지원기관의 맞춤형 정책과 기업의 전략적인 대응이 시너지를 이뤄낸 결과다. HACCP 및 품질 인증 기반을 구축하고, 온라인 마케팅, 박람회 참가 등 패키지형 지원을 바탕으로 신제품 상용화와 수출 성과를 동시에 거두며, 지역 식품기업의 새로운 성장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전통과 건강을 바탕으로 한 농산가공 기업에서 시작해, 수산 간편식과 기능성 식품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한 이고장식품은 앞으로도 국내외 시장에서 차별화된 브랜드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현장속으로 “현장이 답이다” (주)에프엘컴퍼니



‘이 세상 맛이 아닙니다. 저 세상 불닭발’ 매운맛으로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다.

(주)에프엘컴퍼니는 진흥원 바이오플렉스 창업보육센터에서 성장한 전북지역의 대표적인 푸드테크 기업이다. 2021년 9월 예비창업 단계로 입주한 후 같은 해 11월 법인 설립을 완료하며 본격적인 사업에 나섰다. 매운맛 밀키트와 소스를 주력 제품으로 개발하고 있는 이 회사는 진흥원의 보육지원을 바탕으로 빠른 성장을 이뤘다.

에프엘컴퍼니는 창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창업 아카데미를 통한 교육 및 멘토링, 시제품 개발과 판로개척 등의 지원을 받아 제품의 고도화와 사업역량을 강화해왔다. 그 결과, 2025년 상반기 기준 약 9억 2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고용 인원도 12명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창업 첫해와 비교하면 고용은 1,400%, 매출은 3,140%가 증가하는 등 괄목할 성장을 보이고 있다.

기술 측면에서도 에프엘컴퍼니는 시를 접목한 매운맛 개발을 추진하며 TIPS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5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확보했고, 씨엔티테크(주)로부터 2억 원의 시드 투자도 유치했다. 현재는 총 4종의 신제품을 개발하며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있다.

해외시장 진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25년 들어 베트남의 한인마트 청년마켓과 DI VINA에 수출 및 투자계약을 체결했으며, 네덜란드와 러시아 바이어들과의 수출상담을 통해 시장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한국중소마트물류 입점 (3,500만 원 규모), 전주시 우수상품 인증 획득, 벤처기업 인증 등의 성과도 거뒀다.

해외 전시회 참가 역시 활발하다. 베트남 ‘FOOD EXPO’, 태국 ‘서울푸드’, 일본 ‘JFEX WINTER’ 등 다양한 글로벌 무대에서 제품을 선보이며 브랜드 인지도를 넓히고 있다.

(주)에프엘컴퍼니는 앞으로도 AI 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 기반 제품 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전북을 대표하는 푸드테크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프로모션



저세상불닭발 브랜드



기업지원사업 안내

■ 바이오융합교육센터 재직자 교육 훈련생/기업 모집

- 사업기간 : 2026. 01. 01 ~ 2026. 12. 31
- 지원대상 : 바이오·식품·건강기능식품 분야 관련 기업 재직자
- 교육내용 : 식품·바이오 분야 18개 과정
- 지원내용 : 교육 강사료, 교재비, 중식 등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
(단, 고용인원 500명 이상 대규모 기업 참여자의 경우 1인 총 지원 금액의 20% 자부담이 발생하며 금액은 과정별 상이함)
- 교육 수료증 발급
-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일자리창출팀 063-210-6568/6583, jsa8912@jif.re.kr

■ 2026년 전북 농수산물식품 무역사절단 참가기업 모집

- 파견지역 : 베트남 호치민, 일본 후쿠오카
- 파견기간
베트남 호치민 : 2026. 03. 18(수) ~ 03. 20(금) / 2박 3일 / 일본 후쿠오카 : 2026. 04. 14(화) ~ 04. 16(목) / 2박 3일
- 운영내용
 - 무역사절단 파견 및 해외 유망 바이어와의 1:1 비즈니스 미팅 주선
 - 현지 시장, 바이어 정보 제공 및 후속 지원(전문가 설명회, 지사화 사업 등)
- 신청기간 : 2026. 01. 15.(목) ~ 01. 23(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 '전북수출통합지원시스템' 내 해당지원사업 온라인 접수
전북수출통합지원시스템 접속(<https://jbexport.or.kr>) → 지원사업 → 해당지원사업 선택 → 신청하기
- 문의 :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해외수출팀(063-210-6597)

■ 2026년 메디바이오 핵심소재 서비스 실증시험지원 참여기업 모집

- 공고게시 : 메디바이오핵심소재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단(<http://ori.knu.ac.kr>)
- 공고기간 : 2026. 1. 2(금) ~ 1. 30(금)
- 접수기간 : 2026. 1. 2(금) ~ 1. 30(금) 17시까지 접수분에 한함(시간엄수)
- 신청방법 : 메디바이오핵심소재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단 홈페이지(ori.knu.ac.kr) 지원신청

그린바이오 기업 신고 방법 안내

GREEN BIO 그린바이오로 그리는 지속가능한 미래

그린바이오 기업 신고 방법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 7조 1항에 의거하여
*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면 경영 정보 제공 등 요건을 갖추어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접수시기) 2026년 1월 ~
- (신고주체)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신고절차

1 신고서 작성·등록 농진원 홈페이지 팝업 or 배너를 통해 접속 www.koat.or.kr	2 기업현황 및 서류제출 웹사이트 신청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3 수리 여부 검토 농진원, 전문가	4 서류보완 (필요시) 신청기업 이메일확인	5 신고 수리 통지 신청기업 이메일확인
--	---	-------------------------------	-----------------------------------	---------------------------------

- (수리통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메일 발송)
- (문의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그린바이오사업팀 063-919-1428

지속 가능

지속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식량 자원의 안정적인 생산

부가 가치

농업, 수산업, 축산업에 생명공학 기술을 더한 고부가가치

신산업

고부가가치 농생명 신소재 개발을 통한 신산업 창출

건강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공급 및 국민건강 실현

■ 근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1항

*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자는 경영 정보 제공 등 요건을 갖추어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안내사항

- 대상기업 :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신고절차



진흥원 안내도

본관(첨단바이오·식품센터)



-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본관
- 벤처기업 입주공간 제공
- 연구개발 공간

식품분석센터



- 연구개발 및 품질검사
- 영양성분 등 특정검사

바이오·식품산업화센터



- GMP 건강기능식품 생산시설
- 기술력 위주의 유망기업 입주

바이오플렉스 창업보육센터



- 창업기업 입주
- 온라인 화상상담실

비즈니스센터



- 도내 식품기업 상품 전시관
- 바이어 상담실
- B2B 화상 상담실

찾아오시는길

